

신생태계 개념을 통한 문화경관 보존 전략의 재구성: 세계유산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정어진* · 김숙진**

Reconstructing Cultural Landscape Conservation Strategies through the Novel Ecosystem Concept: A Comparative Analysis of World Heritage Cases

Eojin Jeong* · Sook-Jin Kim**

요약 : 본 연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경관 보존·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신생태계(novel ecosystems) 관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세계유산 제도는 등재 시점의 가치를 고정된 기준으로 삼아 이후 변화를 훼손으로 단정하는 정태적 보존 패러다임, 진정성 개념의 물질적 고착, 지역공동체의 구조적 배제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드레스덴 엘베 계곡(등재 말소)과 필리핀 코르디예라 벼농사 경관(위험목록 해제)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신생태계 관점에서 재해석·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두 사례는 상이한 조건에도 동일한 구조적 모순으로 수렴하였으며, 이러한 공통된 문제의 근원이 공동체 참여를 통한 협상적 거버넌스의 부재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SOUV 재검토 절차 제도화, 진정성 평가 기준 마련, 완전성 조건 개정을 제안한다.

주요어 : 문화경관, 신생태계, 세계유산, 진정성, 공동체 참여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structural limitations 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ESCO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and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the ecological concept of novel ecosystems as a complementary interpretive framework. Although cultural landscapes are dynamic heritages formed through continuous interaction between humans and nature, the World Heritage system treats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established at inscription as a fixed reference, treating subsequent change as damage. This reveals three structural limitations: a static conservation paradigm, a materially fixed conception of authenticity, and the structural exclusion of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analyzes two cases at opposite ends of institutional responses to change—the Dresden Elbe Valley (delisted) and the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removed from the danger list)—through a two-stage analytical framework, first diagnosing structural limitations and then reinterpreting each case through the novel ecosystem framework. Despite differing conditions, both cases converged on the same structural contradictions, indicating that the crisis observed in these two cases lies not in conservation technique but in the structural absence of negotiated governance through community participation.

Key Words : Cultural landscape, Novel ecosystems, World heritage, Authenticity, Community participation

*건국대학교 세계유산학과 석사과정(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World Heritage Studies, Konkuk University, ejin322@naver.com)

**건국대학교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sjkim@konkuk.ac.kr)

I. 서론

문화경관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형성된 복합적 유산이다(Antrop, 2005; Taylor and Lennon, 2011; 한지은, 2020).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존 및 관리에서는 문화적 요소와 생태적 요소의 통합뿐만 아니라 변화 자체를 다루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계유산 체제에서는 아직 많은 문화경관에서 특정 시점이나 역사적 원형을 기준으로 이를 유지하거나 복원하고, 변화를 훼손으로 여기는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Taylor and Lennon, 2011; Agnoletti, 2014). 지속적인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복잡성과 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경관에서 전통적인 보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경관의 변화 가능성과 기능적 적응성을 억제할 수 있으며, 문화적 의미와 생태적 회복 사이의 충돌을 발생시키기도 한다(Macdonald and King, 2018).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 및 환경의 변화, 젊은 세대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경제 변화로 인한 전통 농업의 감소 등의 이유로 점점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Antrop, 2005; Agnoletti, 2014; Aktürk and Dastgerdi,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보존생물학 분야에서 등장한 신생태계(novel ecosystem)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은 인간의 개입이나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 생태계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종 조합과 기능 구조를 가진 자율적인 생태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현상이다(Hobbs *et al.*, 2006). 이러한 신생태계의 특징은 전통적인 방식이 중시하는 원형 복원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변화된 경관에서 기능성과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다양한 영향들로 인해서 변화가 진행 중인 다양한 문화경관의 보존 및 관리에서 새로운 해결책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생태계 개념이 문화경관의 보존 및 관리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문화경관의 보존 및 관리 방식에서 신생태계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경관 중 ‘변화’에 대한 대응 및 결과 측면에서 양극단에 있는 드레스덴 엘베 계곡과 필리핀 코르디예라 벵농사 경관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을 하였다. 상반된 제도적 결과

를 보인 두 사례를 대조함으로써, 결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드레스덴의 경우, 변화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었고, 코르디예라 벵농사 경관은 변화로 인해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지만, 장기간의 노력으로 이를 해소하여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서 해제되었다. 이 두 사례에 대하여 두 단계의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문화경관 보존의 한계로 문제들을 각각 구조적, 실천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진단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이러한 진단 내용에 대해 신생태계적 관점에서 Morse *et al.*(2014)이 제시한 신생태계의 4가지 기준을 재해석해 문화경관에 적합한 방향으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경관에서 신생태계 개념이 새로운 이론적 틀뿐만 아니라 실천적 해석 틀로 활용될 가능성을 검토한다.

II. 문화경관 보존 방식의 한계와 신생태계 개념

1. 문화경관 보존 방식과 구조적 한계

세계유산 운영지침은 문화경관을 “자연과 인간의 공동 작품(combined works of nature and man)”이라 정의한다. 문화경관은 1992년에 세계유산의 한 유형으로 등장하였고, 일반 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진정성¹⁾·완전성²⁾ 평가 체계와 함께 문화경관만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특별한 범주가 되었다(김중옥, 2021;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para. 47). 그러나 실제 보존 현장과 제도적 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동작품이라는 통합적 특성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채, 정태적 보존 패러다임, 진정성 개념의 고착, 전문가 중심 구조라는 세 가지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 문화경관의 보존은 건축물 중심의 문화유산 관리 방식에서 발전하여, 경관의 물리적 구조, 역사적 층위 등을 유지하려는 데 집중했다(Taylor and Lennon, 2011).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서 보존 및 복원 대상을 종종 특정 시대의 상태로 한정하여 그 시기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재현하려 했다. Antrop(2005)은 문화경관을 복합적·

동적 시스템으로 재규정하며 이러한 고정적 관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 제도는 이러한 정태적 보존 패러다임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등재 시점에 정해진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서술문(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하 SOUV)은 유산의 보존이나 관리의 핵심 참조 기준으로 고정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위험목록 등재 및 삭제 기준을 통해 문화경관에서 나타나는 모든 변화를 이 참조 기준으로부터의 이탈 여부로만 평가한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para. 51; paras. 177-198). Seekamp and Jo(2020)는 이 평가 체계에서 세계유산 관리가 등재 시점의 OUV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본 논문 역시 이러한 지점이 문화경관의 동적 특성과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고 본다. 문화경관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며 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상인데, 세계유산 제도의 참조 기준은 그 변화를 애초에 상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진정성 개념은 과거의 한 시점을 특권화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시간이 흐르며 변화하는 경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1994년 일본 나라(奈良)에서 UNESCO·ICCROM·ICOMOS가 공동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나라 진정성 문서(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994)는 진정성을 ‘다양한 문화적 맥락과 시간의 흐름 속 가치 누적의 관점’으로 확장했다(ICOMOS, 1994). 이 문서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약은 아니지만, 운영지침 제79~86항 및 부속서 4(Annex 4)에 포함되어,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사실상의 공식 해석 기준으로 기능해왔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그러나 운영지침은 진정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문화경관에 대한 별도의 진정성 조건을 규정하지 않았다(김종욱, 2021;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Annex 4). Khalaf(2021a)는 이러한 공백으로 실제 운영에서는 문화경관을 고정된 상태로 간주하고, 그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Khalaf(2021b)는 이러한 공백으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문화경관에서 진정성 평가가 불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후 Khalaf(2024)는 SOUV 실증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불명확성 속에서 연속성(continuity)이 실제 평가에서 실질

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이것을 명시하지 않아 평가의 불투명성을 낳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화경관은 유산 전문가나 국가기관뿐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하는 시민과 지역사회라는 또 다른 핵심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존 과정에서 이들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보존은 전문가 중심으로 기술적·과학적 기준에 근거해 관리 목표를 설정해 왔으며, 이로 인해 시민이나 지역사회의 참여는 미흡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우선시해온 했다. Taylor and Lennon(2011)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경관 보존 사례 검토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 보존 체계가 지역공동체의 관습적 토지 관리나 무형의 가치 체계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세계유산 현장에서도 전문가 중심 관리 구조가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제한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Li *et al.*(2020)은 교육·훈련 활동을 주로 공식 담당자에게만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최근에 시민사회나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가 보존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조아라·김숙진, 2016; 조유진·김숙진, 2016; 김숙진, 2017; Macdonald and King, 2018), 실행 과정에서 여전히 공식 지정이 지역 의견보다 전문가 관점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Trelka, 2020), 세계유산 문화경관 범주 안에서도 원주민의 무형 지식이나 누적적 가치를 충분히 평가·반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Smith *et al.*, 2019). 이러한 현장의 배제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관행의 문제라기보다, 완전성 기준 자체가 공동체의 참여와 지식이 평가 대상으로 진입할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Khalaf(2024)는 UNESCO 공식 실무 지침서가 완전성을 “OUV를 전달하는 속성의 완전성”으로 명시하여 지역공동체와 원주민에게 중요한 가치나 자연·문화 연결 등 OUV 외의 속성이 평가에서 배제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유산 보호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즉 완전성이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애초에 OUV를 구성하는 물질적 속성으로 한정해버리면, 공동체가 체감하는 관계적·기능적 가치는 평가 항목 목록에 오를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이는 ‘완전성’을 물질적·정태적 상태의 온전성과 무손상성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앞서 확인한 한계들은 문화경관에서 변화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다. 현재 세계유산 제도는 변화를 단순히 OUV 훼손으로 간주하거나 관리 대상

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다양한 대안점을 제시했다. Khalaf(2021b)는 진정성을 연속성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고, Seekamp and Jo(2020)는 변화 이후 가치를 새로운 형태로 계승하는 변혁적 연속성(transformative continuity) 개념을 제안했다. 이들은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당위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가역적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떤 관점에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틀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개념적 자원과 평가틀로서 생태학에서 발전한 신생태계(novel ecosystems)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2. 신생태계의 개념과 주요 특징

생태학자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신생태계(novel ecosystems)’와 유사한 개념을 다루기 시작하였다(Hobbs *et al.*, 2006). 국제 무역, 종 도입, 도시화, 농업 변화 등으로 인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생태계가 출현하면서(Vitousek *et al.*, 1997), 기존 원상복원 중심의 복원 생태학 모델만으로는 현실의 생태계 변화를 설명하거나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생태계를 지칭할 새로운 용어들이 제안되었지만, 개념이 불분명하고 생태학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Hobbs *et al.*(2006)은 ‘신생태계’라는 용어를 새롭게 제시했다. 신생태계란 ‘인간 활동이 형성한 자율적 생태계’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생물 조합과 생태 기능을 갖춘 체계라는 의미이다. 이 정의의 핵심은 인간 활동을 외부 교란이 아니라 생태계 형성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판정했다는 데 있다. 신생태계의 형성 경로는 종 변화, 토지이용 변화, 환경 변화 등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시스템의 반응이 비선형적으로 바뀌는 지점인 ‘생태학적 임계값’을 넘어서면 비가역적이고 자체적으로 유지되는 새로운 안정 상태에 도달한다(Hobbs *et al.*, 2006).

그러나 이 정의가 모호하여 실질적 관리나 정책 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서 Morse *et al.*(2014)은 신생태계를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재정의했다. 첫 번째는 ‘인간 행위(human agency)’로 의도적, 비의도적 인간 활동으로 인해 생태계가 변화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새우 양식장을 위해 맹그로브를 제거하고 지형을 개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임계값 초과(thresholds)

로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생태학적 변화 지점을 넘는 것으로, 조수 유입 차단으로 토양의 염도가 증가하는 등의 조성 변화로 기존의 생태계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한다. 세 번째는 종 조성 변화(species composition)로, 기존 생물군과는 다른 독특한 종 조합을 가지는 경우이며 외래종의 식생 우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는 자립성(self-sustaining)으로, 추가적인 인간의 개입 없이 구조적·기능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이다. 예로는 원형 복원 시도가 실패한 뒤 외래종이 우점하며 형성된 체계가 자생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정의는 기후변화, 질소 침적 등 간접적이고 전 지구적인 인간 영향은 제외하고, 지역적, 직접적인 인간 개입에 의한 생태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다(Morse *et al.*, 2014).

신생태계 개념이 등장한 배경인 ‘원형으로의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상황’은, 문화경관 보존에서 ‘특정 시점의 경관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접근이 경관의 동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긴장을 공유한다. 두 분야 모두 고정된 과거 상태를 기준점으로 삼는 전통적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고, 변화를 훼손이 아닌 새로운 상태의 형성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Macdonald and King(2018)은 신생태계 개념이 문화경관 보존과 생태복원의 통합적 사고를 유도하는 가교 개념(bridging concept)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두 분야 모두 인간-자연 이분법에서 상호의존성으로, 정태적 복원에서 동적 변화 인식으로, 단일 역사 기준의 진정성에서 복합적 가치 체계로, 전문가 중심에서 참여적 실천으로 전환해왔다고 본다(Macdonald and King, 2018). 이 네 가지 전환은 문화경관의 보존관리에 나타나는 인간-자연의 상호의존에 대한 인식 미흡, 동적 변화 미수용, 고정된 진정성 개념, 지역공동체의 주변화 문제에 대응하며, 신생태계 개념이 기존 문화경관 보존의 한계에 대한 개념적 응답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신생태계 관점과 문화경관 관리 방식

신생태계 관점의 핵심은 역사적 원형 복원에서 기능적 가치 중심으로의 이동이다. 생태학적 임계점을 넘어서 비가역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이 목표로 하는 역사적 원형 복원은 생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비용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비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Hobbs *et al.*, 2006; 2009). 이때 인간 행위와 임계값 초과는 그러한 비가역적 변화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진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며, 이를 통해 확인된 변화 이후의 상태는 원형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상태 자체를 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신생태계 관점은 판단한다(Morse *et al.*, 2014). 신생태계를 규정하는 기준은 문화경관의 맥락으로 치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인간 행위(human agency)는 Morse *et al.*(2014)에 따르면 의도적·비의도적 인간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연 생태계에서는 맹그로브 제거나 지형 개조와 같은 물리적 개입을 가리킨다. 이를 문화경관에 적용하면, 이농·관광화·토지이용 변화 등 경관을 형성해 온 문화적 실천의 변화로 대응시킬 수 있다. 즉 전통 농업을 포기하고 관광업 편중 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실천이 이에 해당한다. 종 조성 변화(species composition)는 기존 생물군과는 다른 독특한 종 조합이 형성되는 것을 가리키며, 자연 생태계에서는 외래종의 우점과 토착종의 소멸로 나타난다. 문화경관에서는 이를 경관을 구성하던 문화적·생태적 요소들의 질적 전환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데, 전통 작물이 상업 품종으로, 농업 실천이 관광 실천으로, 전통의례의 구성요소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양상이 이에 해당한다. 임계값 초과(thresholds)는 산업화·이농·기후변화로 전통적 경관 구성이 되돌릴 수 없이 변화한 상태에 대응하며, 자립성(self-sustaining)은 변화된 경관이 외부 개입 없이 공동체의 지속적 이용을 통해 스스로 유지되는 상태에 대응한다.

이 중 임계값 초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가역적 변화의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기능하므로 본 연구는 두 사례에서 임계값 초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포착하기 위해 세 가지 하위 지표를 설정하여 적용한다. 첫째, 개입의 완결성으로 물리적·제도적 변화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이다. 둘째, 판정 시점의 적절성으로 세계유산위원회 등 관리 주체가 변화의 완료 이전과 이후 중 어느 시점에 비가역성을 선언하였는지 여부이다. 셋째, 원상회복의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으로 현재 시점에서 이전 상태로의 복원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이다.

문화경관의 보존·관리에 있어 세 가지 구조적 문제인 정태적 관점, 진정성,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해서도 신생태계 관점은 새롭고 보완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Hobbs *et al.*(2009)은 변화를 원형으로부터의 이탈, 즉 훼손 또는

위험요소로 간주하는 정태적 관점이 보존과 복원의 노력을 비현실적인 목표에 묶어둔다고 직접 비판하며, 보다 동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신생태계 관점에서는 인간 활동을 생태계에 대한 외부적 교란이 아닌 경관 형성의 내재적 구성 요소로서 인식하므로 생태학적 임계점을 넘는 변화는 인간 행위와 환경 변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새로운 종 조합과 기능이 자율적으로 유지되는 자립성을 갖출 경우, 이를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수용한다(Hobbs *et al.*, 2006; 2009; Morse *et al.*, 2014). 이 관점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문화경관 형성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는 문화경관의 개념적 전제와 UNESCO 운영지침이 문화경관을 “자연과 인간의 공동작품”으로 정의하는 방식과도 부합한다(Macdonald and King, 2018;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세계유산 제도 내 진정성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해, 신생태계 관점은 진정성을 고정된 원형의 물질적 재현이 아니라 경관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와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재해석한다. 이는 1994년 나라 진정성 문서가 진정성을 물질 속성에서 무형 속성과 문화적 맥락으로 확장한 방향과 부합하며, 경관의 누적적 변화와 현재의 기능적 가치를 진정성 평가의 구성 요소로 인식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신생태계 관점에서 경관은 인간의 이용과 가치가 얹힌 사회생태적 시스템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신생태계 관점에서 지역 주민, 농민, 행정가, 정책결정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가치와 이용 방식을 반영한 협상적 과정은 효과적인 경관 관리의 핵심이다(Hobbs *et al.*, 2014). 이러한 협상적 관리 원칙은 세계유산 문화경관 관리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가역적 변화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SOUV를 재검토해야 할 때, 기존의 등재 시점의 OUV를 기준으로 삼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대신해서 현재의 기능적 가치와 지역공동체의 이용 방식을 함께 반영하는 협상적 평가가 필요하다(Hobbs *et al.*, 2014; Macdonald and King, 2018). 이는 비가역적 변화를 OUV 훼손으로 단정하지 않고 누적된 가치의 층위로서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이며, 본 연구가 신생태계를 왜 보완적 분석 틀로 활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밴쿠버섬 인근의 Tl'ch'és(디스커버리 섬 및 채텀 제도)는 19세기 천연두 유행과 담수 고갈로 1960년대 초 레쿠웁겐 원주민이 섬을 떠난 이후, 히

말라야 블랙베리 등 외래종이 확산해 서채텀섬 식생의 약 90%가 비토착종으로 전환된 신생태계 상태에 이르렀다 (Gomes, 2013). Gomes(2013)는 이러한 상태로의 원형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도, 레쿠웅겐 원로들이 과거의 생태적 조건뿐 아니라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태(오래된 유산 과수원, 외래 베리류 등) 역시 가치 있게 여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과 현재적 실천을 결합한 ‘모디셔널 생태학(moditional ecology)’ 개념을 제안하여, 문화적 핵심종인 카마스(camass)의 보존, 외래종의 식용·재료 활용, 전통 의례(피트쿱)의 부활 등을 포함한 에코·문화적 복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사례는 신생태계 관점이 생태적 원형 회귀가 아니라, 변화된 생태 조건과 공동체의 문화적 실천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정성을 재구성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인간 행위를 경관 형성의 내재적 동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모든 변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Murcia *et al.*(2014)은 신생태계 개념이 훼손에 대한 ‘면죄부(license to trash)’로 오용되어 보존 기준을 낮추는 근거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본 연구가 채택한 임계값 초과·자립성 기준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제어하는 장치로 기능한다—인간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임계값 초과와 자립성을 함께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변화는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III. 드레스덴 엘베 계곡 (Dresden Elbe Valley)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2004년 등재 기준 (ii), (iii), (iv), (v)³⁾를 충족해 세계유산이 되었고, 지속되는 문화경관(Continuing Cultural Landscape) 카테고리에 속한다. 이 지역은 18~19세기에 형성된 문화경관으로, 드레스덴 중심부의 기념비적 건축물과 궁전을 핵심 축으로 강을 따라 약 18km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그림 1), ‘블루 원더’ 교량과 증기선·조선소 등 산업혁명기의 요소들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6년 “발트슬레스헨 교량”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2009년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되었다(ICOMOS, 2004;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n.d.).

1. 문화경관 보존관리의 구조적 한계

1) ‘변화’를 OUV의 ‘훼손’으로 단정하는 정태적 관점의 지속

드레스덴 사례에서 동적 변화를 가치의 훼손으로 단정하는 정태적 관점은 유네스코 제도 문서의 언어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발트슬레스헨 교량 착공을 “유산의 가치와 완전성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훼손”으로 규정했다(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06b; 2007). 또한,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08)과 2008~



그림 1. 드레스덴 엘베 계곡

출처 : Rehfeld, S., n.d.

2009 보존현황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이하 SOC)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이전 보존 상태로의 복구”만을 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8a; 2009a). 드레스덴 사례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대응은, 변화 자체를 가치 상실로 인식하는 정태적 편향이 제도 운영 차원에서도 반복되어 온 양상과 상통한다(Antrop, 2005; Taylor and Lennon, 2011).

이러한 고착화는 드레스덴의 공식 SOUV 채택 이전에도 작동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위원회는 드레스덴을 ‘진화 과정이 진행 중인 경관(Continuing cultural landscape)’으로 등재하였음에도 등재 평가 당시부터 변화의 압력을 위협으로 서술하였고(ICOMOS, 2004), ‘예술적 전체(Artistic whole)’라는 등재 시점의 시각적 양상 기준만을 절대화했다. 이후 위원회가 교량 공사 완공 이전인 2009년 선제적 말소를 단행함으로써(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09), 등재 시점의 상태 유지만을 목표로 삼는 ‘공학적 회복탄력성’ 모델의 경직성을 드러냈다(Seekamp and Jo, 2020). 이는 평가의 경직성이 특정 문서(SOUV)의 유무를 넘어 드레스덴 사례에서 나타난 세계유산 심의 관행의 구조적 관성을 보여준다.

2) 진정성 평가의 문제

드레스덴 사례에서는 진정성이 물질적·특정 시점 기준에 머물러 사회적·무형적 연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운영 지침에 별도 조건이 없어 암묵적 연속성이 불투명하게 작동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등재진술문(Nomination file)은 나라 진정성 문서를 명시적으로 인용하며 진정성 평가 항목으로 “구성요소들의 용도와 기능(the use and function of its parts)”를 명시한다(Federal Republic of Germany, 2004). 그러나 실제 판단은 ‘본래 상태 유지’와 ‘불변함’과 같은 물리적·시각적 서술을 명시한다. 이에 더해, 지역 주민의 참여조차 무형적 속성이 아닌 “유산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홍보 역량”의 증거로만 제시된다.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자문기구 평가에서도 무형적·사회적 속성의 서술을 확인할 수 없었다.

Khalaf(2020a)는 나라 문서가 진정성을 무형·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했음에도 실제 평가에서는 물질적 연속성이 사실상의 준거로 기능하는 구조를 비판하는데, 드레스덴에 대한 진정성 판단이 “본래의 상태를 유지”, “변형되지 않음”으로 귀결되는 방식은 이 간극을 실증하는 사

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식적인 적용은 진정성 개념의 실증으로 이어졌다. 2006년 SOC는 아헨 공과대학교의 시각적 영향 평가가 발트슬레스헨 교량이 ‘조망을 차단하고, 응집력 있는 경관을 절단함’이라고 결론지었다고 기록하였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6a). 이에 근거하여 2007~2009년 SOC에서는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시각적 완전성’이 위험목록 등재부터 말소까지 일관된 판단 근거로 작동했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7a; 2008a; 2009a). 이는 나라 문서에서 확장된 진정성 개념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모든 평가가 완전성과 OUV라는 포괄적 언어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는 Khalaf(2024)가 지적한 ‘암묵적 연속성’ 기준이 작동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등재 당시의 가치’ 표현의 반복과 ‘시각적 완전성’과 연속성이라는 두 기준 모두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화경관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 진정성 조건의 부재가 낳은 구조적 불명확성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 지역공동체와 실천적 지식의 구조적 배제

드레스덴 사례에서 지역사회의 의사와 실천적 지식이 문화경관 관리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된다. 등재진술문 분석 결과, 문화재·자연·수자원 전 분야의 관리 권한이 주·지구·자치시의 관료로만 폐쇄적으로 독점되었으며(Federal Republic of Germany, 2004, section 4d-e), 시민의 역할은 단순 홍보 및 자원봉사에 머물렀다(Federal Republic of Germany, 2004, section 3e; Li et al., 2020). 더욱이 발트슬레스헨 교량 건설은 국제 설계공모, 시민투표(다수 찬성), 법원의 이행 명령을 거친 합법적 절차였으나, 세계유산위원회는 사회경제적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일방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훼손”으로 기각하였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6a; 2007a). 이러한 사실들은 지역사회의 의사와 실천적 지식이 전문가 권력에 밀려 제도적으로 철저히 배제되었음을 보여주며, 지역의 민주적 합의와 사법부 판결이 전문가 중심의 OUV 보존 담론 앞에서 사후적으로 무효화되었음을 시사한다(Trelka, 2020).

완전성 평가 체계 역시 이러한 배제 구조를 고착화하였다. 등재진술문은 완전성 항목에 ‘구성 부분들의 이용과 기능’을 명시했으나, 실제 심의에서는 운영지침 제89항의 “관계와 역동적 기능 유지” 조항이 독립적 지표로 조각화되지 못하였다. 대신 아헨 공과대학교의 시각적 영

향 평가가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살아있는 도시의 교통 수요와 주민의 일상적 기능은 완전성 판단에서 완전히 사상되었다. 결국 드레스덴의 말소 과정은 전문가 중심의 시각적·물질적 보존 기준이 지역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회·생태적 필요를 대체·억압해 온 세계유산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Taylor and Lennon, 2011).

2. 신생태계 관점 재해석

1) 변화의 동인 다시 읽기

신생태계 관점에서 ‘인간 행위(human agency)’ 기준은 유네스코가 외부적 교란이자 훼손으로 규정한 발트슬로벤스헨 교량 건설을 경관 형성의 내재적 동력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한다(Morse *et al.*, 2014). 교량 건설은 도심 교통난 해소라는 사회경제적 필요에 기반하여 국제 공모, 시민투표, 사법부 판결을 거쳐 추진된 의도적 인간 활동이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이를 일방적 침해로 간주한 것과 달리, 신생태계 관점은 인간 활동을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문화경관을 지속적으로 갱신해나가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파악한다(Hobbs *et al.*, 2006).

‘임계값 초과(thresholds)’ 기준은 세계유산 제도가 변화의 비가역성을 판단한 절차적 패턴을 설명하는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교량이 완공(2013년) 되기도 전인 2007년 공사 착공 이후 설계 수정의 여지를 닫고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선언하며 2009년 선제적 말소를 단행하였다(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09). 이러한 결정은 물리적 변화의 누적적 지점을 지나 비가역적 전환에 도달했다고 판정한 생태학적 임계값 메커니즘과 구조적으로 상통한다(Macdonald and King, 2018). 그러나 세계유산 제도는 변화의 완료 이전에 스스로 회생 불가능성을 확정함으로써, 원형 복원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고집하다 적응적 관리의 기회를 놓치는 해석적 공백을 노출하였다(Hobbs *et al.*, 2009).

2) 진정성의 재구성

신생태계의 ‘종 조성 변화(species composition)’ 기준은 발트슬로벤스헨 교량을 사회경제적인 요구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문화적 조합’으로 재해석할 근거를 제공한다(Morse *et al.*, 2014). 실제로 Zwegers(2018)는 드레스덴 시 당국이 19세기 당대 혁신의 상징이었던 ‘블루 원더’ 교

량이 이질감을 극복하고 도시 경관의 핵심 유산으로 안착했던 역사적 선례를 제시하며, 신규 교량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인 생태계에서 새로운 종이 유입되어 새로운 군집을 형성하는 것처럼, 문화경관도 새로운 인프라와 결합하여 다층적인 가치를 축적해나가는 모습이라 재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경관의 의미가 정치·사회적 조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야오동(窯洞) 경관의 재현 방식 변화(한지은, 2020)와도 상통한다.

이러한 재해석은 진정성 개념을 ‘기능적·적응적 진정성’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나라 진정성 문서(ICOMOS, 1994)가 명시한 “사용과 기능” 및 ICOMOS(2004)가 정의한 “살아있는 사회와 긴밀히 결부된 경관”이라는 전제에 비추어 볼 때, 강 횡단 교통난 해소는 도시 유산의 지속성을 지탱하는 실질적 조건이었다. 그러나 제도는 허용 가능한 변화를 판별할 조작적 기준을 결여한 채 정태적 연속성만을 잣대로 삼아 교량을 기본값으로 훼손 판정하였다(Khalaf, 2020b). 신생태계 관점은 교량 건설을 도시의 기능적 적응과 공동체의 일상적 이용이 결합된 새로운 진정성의 발현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새로운 관리 대상의 인정

신생태계의 ‘자립성(self-sustaining)’ 판정은 Morse *et al.*(2014)의 구조·생태계서비스 기준과 Hobbs *et al.*(2009)의 관리적합성(공동체 참여 기회) 기준을 결합하여 평가된다. 분석 결과 드레스덴은 물리적·기능적 측면과 사회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Holling(1996)은 회복력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공학적 회복력(engineering resilience)은 단일 평형상태 인근에서의 안정성을 전제로, 교란에 대한 저항성과 그 평형으로의 복귀 속도로 측정된다. 반면 생태적 회복력(ecological resilience)은 평형에서 먼 상태를 전제로, 체계가 구조를 바꾸어 다른 안정 영역(stability domain)으로 이행하기 전까지 흡수할 수 있는 교란의 크기로 측정된다(Holling, 1996). 신생태계 개념 역시 이와 상통하는 방식으로 자립성을 규정하는데, “집약적 인간 관리 없이(without intensive human management)” 새로운 성질을 자기조직화하는 상태로 정의된다(Hobbs *et al.*, 2014).

우선 물리적 구조 차원에서 발트슬로벤스헨 교량은 개통 직후인 2014년 드레스덴시 교통량 계수 체계에 편입되어 기능하였고(Landeshauptstadt Dresden, 2014), 개통 약

11년 후인 2024년 카를라고 붕괴 시에도 대체 경로로서 전환 교통량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며 정상 기능하였다(Ijaradar *et al.*, 2026). 다만 이때 흡수한 비중은 전체 전환량의 약 6%에 그쳐, 이 교량을 도시 교통망 회복력의 핵심 노드로 서술하는 것은 과장이며, 제한적 수준의 기여로 한정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립성을 제한적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계서비스(교통 기능) 측면에서는 통행 시간 단축이라는 기능적 편익과 접속도로 교통량 증가 부담이 공존하는 조건부 충족 상태를 나타냈다(Landeshauptstadt Dresden, 2014). 그러나 공동체 참여 기회 차원에서는 시민단체의 청원과 주민투표가 협상적 자기조직화로 발전하지 못하고 사법적 대립과 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귀결되어 ‘미충족’으로 판정된다(Gaillard, 2014). 결국 드레스덴의 세계유산 탈락은 물리적 자립성의 결여가 아니라, 변화된 상태를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수용하고 조율할 협상 거버넌스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로 재해석된다(Hobbs *et al.*, 2014).

IV. 필리핀 코르디에라의 계단식 논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필리핀 코르디에라 벼농사 경관(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은 1995년 등재기준 (iii)~(v)로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 범주에 해당하며, 루손섬 북부 코르디에라 산맥에 위치한 4개 지방자치단체(바나우에, 홍두안, 키양안, 마요야오)의 5개 계단식 논 클러스터(바닷, 방간, 인밀록-아바탄, 나가카단, 중앙 마요야오)로 구성된다(그림 2). 이푸가오 소수민족이 약 2천 년에 걸쳐 조성한 계단식 논·관개체계와, 전통 지식·의례·공동체 협력에 기반한 살아있는 문화경관으로 규정된다. 계단식 논 of 약 25~30%가 방치·관개 시설 손상·병충해로 훼손되어 2001년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으나, 약 11년간의 복원·보존 노력을 거쳐 2012년 해당 목록에서 해제되었다(ICOMOS, 1995;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01; 2012).

1. 구조적 한계 진단

1) ‘변화’를 OUV의 ‘훼손’으로 단정하는 정태적 관점의 지속

코르디에라 사례에서도 경관의 동적 변화를 훼손으로 단정하고 특정 과거 상태로의 원상회복만을 강제하는 정태적 관점이 뚜렷하게 작동하였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농으로 인한 논 방치를 10년 내 반전시켜야 할 ‘가치 상실 위협’으로 규정하였으며(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01; 2006a), 2006년~2021년 SOC는 ‘전통



그림 2 필리핀 코르디에라 벼농사 경관

출처 : Venenos, P., n.d.

생활양식과 지식체계의 변화'를 매년 영향 요인으로 기재하였고(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6b; 2007b; 2008b; 2009b; 2010; 2011; 2012b; 2014; 2016; 2018; 2021), 2021년 SOC는 수익성 높은 작물로의 전환을 전통 지식의 상실 요인으로 기술하였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1). 위험목록 해제 기준(DSC)은 붕괴된 축대의 50% 이상 복원과 주요 관계시설 복구 등 경관 복원 항목과 함께 공동체 기반 토지이용계획(Community-Based Land Use Planning and Zoning, 이하 CBLUZP) 시행, 관리기구 및 논 소유자 조직의 운영 등 계획·관리 항목을 포함하였다(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10). 그러나 2012년 해제(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12)는 CBLUZP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11;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2b;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14), 이는 공동체 기반 계획 항목의 완결이 해제 판단의 필수 조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변화의 사회경제적 맥락보다 물리적 복구에 무게를 두는 정태적 편향이 코르디에라 사례에서도 반복된 것으로 해석된다(Antrop, 2005; Taylor and Lennon, 2011).

코르디에라 사례에 나타난 이러한 접근은 제도 내부의 언어적 모순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유산은 '진화하는 문화경관'으로 규정되었으나, 2008년 채택된 의의 서술문(Statement of Significance)과 이를 토대로 2011년 채택된 SOUV는 "2,000년간 사실상 변함없이"라는 불변성을 앞세워 진화적 속성을 사상시켰다. 그 결과 과거 고대 Taro에서 Tinawon 벼로의 작물 교체는 정당한 역사로 승인하면서도, 현대의 고품식 지붕 도입이나 상업 작물 전환은 '부조화'와 '취약성'으로 배제하는 자의적 이중 잣대가 발생하였다(ICOMOS, 1995). 코르디에라는 공식 SOUV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검토·수정하는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등재 시점의 가치 유지만을 목표로 삼는 공학적 회복탄력성 모델의 경직성을 드레스덴과 동일하게 보여준다(Seekamp and Jo, 2020).

2) 진정성 평가의 문제

코르디에라 사례에서 진정성이 무형적·적응적 변화를 포섭하지 못하고 특정 과거 상태의 연속성으로 축소된 양상은 공식 평가 문서 전반에서 확인된다. 자문기구 평가서(ICOMOS, 1995)는 진정성을 기후·지리·생태·농업·민족지학·종교·사회·경제·정치 등 다양한 요소

간 균형의 산물로 규정하여, 물질적 속성을 넘어 사회·경제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나라 진정성 문서(ICOMOS, 1994)의 취지를 형식상 수용하는 듯 보였다. 실제로 이 평가서는 '필리핀 계단식 논에 있어 진정성은... 광범위한 요소들 간의 미묘한 균형이 이루어진 직접적인 결과로서만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한 번이라도 교란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지난 2천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함께 작동하는 한, 그 진정성은 완전하다'라고 명시한다(ICOMOS, 1995). 그러나 이 서술은 경제적 요소를 진정성의 정당한 구성 축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인정을 '지난 2천 년간 조화롭게 작동해 온 상태의 지속'이라는 절대적 조건에 종속시킨다. 그 결과 상업 작물로의 전환과 같은 통상적인 경제적 적응이 발생하는 순간, 애초에 경제적 요소를 진정성의 일부로 인정했던 전체 자체가 '전체 시스템의 붕괴'로 처리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것이 본 연구가 말하는 '조건부 무력화'의 의미이다—나라 문서의 다원적 취지를 명목상 수용하되, 그 적용을 무변화라는 조건에 종속시켜 실질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정태적 진정성 개념으로 회귀시키는 구조이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요소의 재해석 가능성은 1995년 등재 심사 당시의 서술로만 존재하며, 이후 보존현황보고서나 위험목록 관련 결정문에서 실제 진정성 판단 기준으로 재적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무형적 요소가 형식적으로 누락되었던 드레스덴과 달리, 풍부하게 열거되었음에도 단일 불변성 조건에 종속되어 결과적으로 배제되는 상이한 경로를 보여준다(Khalaf, 2021a).

이러한 한계는 문화경관 특화 진정성 기준의 부재 속에서 '암묵적 연속성'의 자의적 적용으로 이어졌다. SOUV 본문은 "2,000년 동안 사실상 변함없이 사용되어 온 기술"이라는 표현을 명시했으나, 이 '변함없음'이 허용하는 변화의 한계나 조작적 기준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기 보고(Periodic Reporting Cycle 2) 등 실제 심의에서는 전통 생활방식의 변화가 일률적으로 '부정적 영향'으로 기술되었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2a). 결국 코르디에라는 SOUV가 명시적으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역사적 지속 기간이라는 정태적 척도로 환원되어 현장의 유연한 문화적 조율을 평가하지 못하는 제도적 불명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Khalaf, 2021b; 2024).

3) 지역공동체와 실천적 지식의 구조적 배제

코르디에라 사례에서 지역사회의 관습적 지식과 토지 관리 실천이 문화경관 관리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된다. 정기 보고(Periodic Reporting Cycle 3)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와 여성의 모니터링 참여는 ‘없음’으로 기록되었으며, 기술적 복구 업무는 외부 인력이 전담하였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3). 원주민의 전통 산림관리 지식인 무용(muyong)이나 유용성에 기반한 고유 기준(maphod)은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었고, 유네스코와 관리 당국은 시각적 조망 보존에 집중하며 살아있는 전통을 단순 관광·공연용 대상으로 전락시켰다(Cagat, 2018; Acabado *et al.*, 2025). 이러한 사실들은 지역사회와 관습적 지식과 토지 관리 실천이 전문가 중심 거버넌스에 밀려 체계적으로 주변화되었음을 보여주며, 공동체를 보존의 주체가 아닌 관리의 객체로 위치시키는 전문가 중심 위계 구조가 이 사례에서도 나타났음을 시사한다(Taylor and Lennon, 2011; Li *et al.*, 2020).

이러한 배제는 완전성 평가의 조작적 결함과 맞물려 제도화되었다. 운영지침 제89항이 문화경관의 특화 조건으로 요구하는 “관계와 역동적 기능 유지”는 구체적 평가지표로 운용되지 못하고, 실제 판단에서는 물리적 축대 복구와 수로 수리 개수라는 양적 지표가 우선되었다. 특히 핵심 거버넌스 도구였던 CBLUZP가 미완결 상태였음에도(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11), 위원회는 물리적 위협이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2012년 위험목록 해제를 강행하였다(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12). 결국 코르디에라의 관리 과정은 제도 운영이 문화경관의 총체적 사회·생태적 관계를 포섭하지 못한 채, 물리적 온전성과 절차적 완료만을 우선시하여 지역사회의 실질적 통제권을 소외시켰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Khalaf, 2024; Acabado *et al.*, 2025).

2. 신생태계 관점 재해석

1) 변화의 동인 다시 읽기

신생태계의 ‘인간 행위(human agency)’ 기준은 유네스코가 ‘방치와 훼손’으로 규정한 코르디에라의 변화들을 공동체의 능동적 적응 과정으로 재독해한다(Morse *et al.*, 2014). 청년층의 이농, 현대 벼 품종 및 상업 채소로의 작물 전환, 관개수로의 콘크리트화와 지붕의 골합석화는

고립된 위기가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농민들이 선택한 다층적 인간 행위의 결과이다(Hobbs *et al.*, 2006). 제도가 이를 전통성으로부터의 이탈로만 다룬 것과 달리, 신생태계 관점은 이러한 실천적 선택을 경관을 동적으로 재구성하는 내재적 동인으로 수용한다.

‘임계값(thresholds)’ 기준을 적용할 때 코르디에라는 단순한 ‘위협 해소’가 아닌 복합적인 전이 상태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2012년 물리적 위협이 해소되었다며 위험목록에서 해제했으나, 핵심 관리 도구인 CBLUZP는 미완결 상태였으며, 해제 이후인 2014년에도 위원회는 이 계획을 마스터플랜에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다(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14). 이후에도 기후변화와 관광 관련 개발 등 새로운 압력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4; 2016; 2018; 2021). 즉 코르디에라는 임계값을 완전히 넘어서지 않은 채 하위 요소별로 불균등한 변화가 진행되는 ‘임계값 근접 상태’에 머물러 있다(Hobbs *et al.*, 2006). 이는 위원회의 해제 판정이 온전한 시스템 회복이 아니라, 잔존하는 구조적 취약성과 신규 압력이 병존하는 불완전한 제도적 타협이었음을 보여준다.

2) 진정성의 재구성

신생태계의 ‘종 조성 변화(species composition)’ 기준은 코르디에라의 물질적·생태적 변화를 가치의 변질이 아닌 새로운 조합의 출현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Morse *et al.*, 2014). 과거 고대 Taro에서 Tinawon 벼로의 전환이 정당한 역사로 수용되었듯이, 현대 벼 품종 도입, 상업 채소 재배, 관개수로의 콘크리트 및 지붕의 골합석 사용 역시 경관의 구성요소가 환경 변화에 반응하여 질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다(Borromeo *et al.*, 2017; Maharjan *et al.*, 2025). 즉, 코르디에라는 과거 원형과 새로운 요소가 혼합되어 적응을 모색하는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문화경관’의 궤적 위에 위치한다(Hobbs *et al.*, 2014).

이러한 재독해는 진정성 평가의 초점을 2,000년 전 상태의 물질적 박제에서 ‘관계적·기능적 진정성’으로 전환시킨다. 등재 근거 자체가 생태·사회·경제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명시했듯, 농민들이 경제적 생존을 위해 작물과 재료를 능동적으로 조율하는 실천은 문화경관의 지속성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다. 신생태계 관점은 고정된 원형으로부터의 이탈만을 감시하던 정태적 시각을 탈

피하여,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토지 이용을 지속해나가는 공동체의 ‘적응 과정’ 자체를 진정성의 핵심 층위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Macdonald and King, 2018).

3) 새로운 관리 대상의 인정

코르디에라 문화경관에 대한 신생태계 ‘자립성(self-sustaining)’ 평가는 Morse *et al.*(2014)의 구조·생태계서비스 지표와 Hobbs *et al.*(2009)의 공동체 참여 기준을 통해 다층적으로 진단된다. 물리적 구조 차원에서 코르디에라는 국가 재정 지원의 지속적인 투입에도 불구하고 복구 자금 부족과 석벽·수로의 노후화가 지속되어 ‘미충족’으로 판정된다(Calderon *et al.*, 2008). 이는 드레스덴 교량이 상시 교통체계에 성공적으로 편입되어 자체 유지성을 입증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생태계서비스 차원에서는 콘크리트 관개의 통수 효율과 지하수위 저하, 작물 전환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와 생태적 부담(농약 사용)이 상충하는 전형적인 ‘조건부 충족’ 상태를 나타냈다(Meijer *et al.*, 2006; Acabado *et al.*, 2025).

가장 심각한 제도적 공백은 ‘공동체 참여 기회’ 기준에서 확인된다. 토지 소유자와 여성의 모니터링 배제, 계획 수립 단계의 중앙 집중화로 인해 지역사회가 변화된 경관을 자율적으로 조율할 기회가 원천 차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참여 축은 ‘미충족’으로 판정된다(Cagat, 2018). 더욱이 유네스코는 농민들의 기능적 적응(콘크리트 수로, 골함석 지붕, 상업 작물)을 시각적 전통성에 종속시켜 일방적으로 규제하였다. 결국 코르디에라의 자립성 결여는

외부 재정 의존성뿐 아니라, Hobbs *et al.*(2014)이 강조한 ‘공동체 참여에 기반한 협상적 자기조직화’ 경로가 제도적으로 봉쇄된 필연적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사례에 대한 신생태계 4대 기준의 적용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V. 결론

본 연구는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보존·관리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를 규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해석틀로서 신생태계(novel ecosystems) 관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은 ‘변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 결과가 양극단에 위치한 드레스덴 엘베 계곡(등재 말소)과 필리핀 코르디에라 벼농사 경관(위험목록 해제)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문화경관 보존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한 결과, 두 사례는 유산의 유형(도시 인프라/전통 농경)과 공식 SOUV의 유무라는 상이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구조적 모순으로 동일하게 수렴하였다. 현행 세계유산 제도가 ‘진화 과정이 진행 중인 경관’이라는 범주적 정의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등재 시점의 가치 상태만을 절대화하는 ‘공학적 회복탄력성(Seekamp and Jo, 2020)’ 관성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나라 진정성 문서(ICOMOS, 1994)가 제시한 가치 다원화 원칙은 현장에서 조작적 기준의 부재로 인해 시각적 양상불이

표 1. 신생태계 4대 기준의 문화경관적 적용 및 사례 비교

기준	문화경관적 의미	판정 근거(하위 지표)	드레스덴	코르디에라
인간 행위	농업·토지이용·정주 등 경관 형성의 문화적 실천	사회경제적 필요에 근거한 의도적 행위 여부	국제공모·시민투표·사법판결을 거친 의도적 행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속 농민의 다층적 선택
임계값 초과	산업화·이농·기후변화로 인한 비가역적 경관 변화	(1) 개입의 완결성 (2) 판정 시점의 적절성 (3) 원상회복 실현가능성	초과(단, 절차상 조기 판정)	근접 상태(불완전 이행)
종 조성 변화	경관 구성요소의 질적 전환	유사한 역사적 전례와의 비교를 통한 정당성 판단	블루 워터 교량의 역사적 수용 전례 원용	고대 Taro→Tinawon 전환 전례 원용
자립성	집약적 관리 없이 공동체 이용을 통해 유지되는 상태	(a) 동일 평형 복귀 vs 새 안정 영역 이행 (b) 생태계서비스 균형 (c) 공동체 참여 기반 자기조직화	(a) 제한적 충족 (b) 조건부 충족 (c) 미충족	(a) 미충족 (b) 조건부 충족 (c) 미충족

주 : 임계값 초과와 (1)~(3)은 개입의 완결성·판정 시점의 적절성·원상회복 실현가능성을 가리키며, 자립성의 (a)~(c)는 Holling (1996)의 회복력 구분에 근거한 구조적 판정·Morse *et al.*(2014)의 생태계서비스 판정·Hobbs *et al.*(2009)의 공동체 참여 판정을 각각 가리킨다.

나 물리적 불변성으로 환원되었으며(Khalaf, 2021a; 2024), 지역공동체의 실천적 지식과 의사결정은 공식 전문가 중심의 평가 체계에 밀려 배제되었다(Taylor and Lennon, 2011; Li *et al.*, 2020).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생태 복원과 문화경관 보존의 통합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가교 개념(Macdonald and King, 2018)으로서 신생태계 이론(Hobbs *et al.*, 2006; 2014; Morse *et al.*, 2014)을 적용하여 두 사례의 변화를 재해석하였다. 재해석은 기존 제도가 ‘외부적 교란’이나 ‘훼손’으로 규정한 변화들이 문화경관 형성의 내재적 동력이자 새로운 적응 궤적일 수 있다고 본다. Morse *et al.*(2014)의 기준을 적용할 때, 드레스덴의 인프라 구축과 코르디에라의 영농 형태 변화는 외부 침입이 아닌 지역사회의 적응적 ‘인간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과거의 변화(블루 윈더 다리, Tinawon 벼)를 역사로 포섭했던 기준을 현대의 변화(발트슬프스헨 교량, 현대 품종 및 골함석)에도 일관되게 확장 적용한다면, 이는 원형 훼손이 아닌 ‘새로운 문화적·생태적 조합(중 조성 변화)’을 통한 하이브리드 경관(Hobbs *et al.*, 2014)의 형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울러 진정성 역시 고정된 등재 시점의 물리적 원형이 아니라, 나라 진정성 문서(ICOMOS, 1994)가 제시한 가치 다원성의 관점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드레스덴의 교통 기능 확충과 코르디에라의 작물·재료 전환은 모두 살아있는 공동체가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유산과 맺어온 관계적 진정성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Macdonald and King, 2018).

두 측면을 종합할 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분석적인 발견은 자립성과 협상적 관리의 결여이다. 구조와 기능 측면에서 드레스덴은 11년 이상 기능적 통합을 유지하며 구조적 자립성을 보였으나, 코르디에라는 외부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열화가 지속되어 자립성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두 유산 모두 Hobbs *et al.*(2009; 2014)이 강조한 ‘공동체 참여를 통한 협상적 자기조직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모두 미충족)이다. 드레스덴은 민주적 합의가 사법적 대립과 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파편화되었고, 코르디에라는 모니터링과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이 원천 배제되었다.

결국 본 연구는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단순히 물리적 보존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변화된 상태를 새로운 사회·생태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조율해나가는 협상적 거버넌스의 구

조적 부재”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신생태계 관점은 이러한 제도적 간극을 메우고, 문화경관을 정태적 박제에서 동적 적응 시스템으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평가 틀로서 유효한 가능성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양상이 세계유산 체제 전반에서도 나타나는지는 향후 추가 사례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정 절차의 보완이다. SOUV(또는 그 부재 시 반복 환기되는 평가서 언어)라는 고정된 기준으로 변화를 완결 이전부터 ‘훼손’으로 단정해 온 현행 방식 대신, 유의미한 변화가 누적되는 시점에 SOUV 자체를 재검토·수정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그 과정에서 신생태계 관점을 보완적 해석틀로 활용해 판정 근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정성 평가의 조작적 기준 마련이다. 변화·진화가 등재 범주 자체에 내재된 문화경관 유형에서도 ‘과거의 변화는 역사로, 현재의 변화는 훼손으로’ 처리하는 이중 기준이 반복되는 것은 운영지침이 수용 가능한 변화의 수준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생태계의 조작적 기준(인간 행위, 중 조성 변화 등)을 참고해 변화의 범위와 근거 수준을 구분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 셋째, 완전성 조건의 개정과 공동체 참여 채널의 개선이다. 두 사례 모두에서 확인된 공동체 배제는 운영지침 89항이 완전성 평가의 독립적 기준으로 구성되지 못한 공백에서 비롯됐다. 89항을 공동체 의사결정 참여를 포함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개정하고, 사후적 의견 수렴이 아니라 초기 경계 설정·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동체의 결정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상의 제언은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 UNESCO 공식 문서와 보충 자료에 의존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당사자 인터뷰 등 현장 조사가 필요하며, 본 연구가 다룬 사례를 넘어 같은 유형의 문화경관과 자연·복합유산 등 다른 세계유산 범주로 확장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수 사례에 걸친 실증이 축적되면 ‘변화’에 대한 세계유산 제도 자체의 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도 더 정교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註

- 1) 운영지침 제82항은 문화유산이 진정성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등재기준에서 인정된 문화적 가치가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기법·관

- 리체계, 위치와 환경, 언어를 비롯한 무형유산의 여러 형태, 정신과 감정, 그리고 그 밖의 내적·외적 요인 등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게 표현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도록 규정한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para. 82).
- 2) 운영지침 제88항은 완전성을 자연 및/또는 문화유산과 그 속성의 전체성(wholeness)과 온전성(intactness)의 정도로 정의하며, 그 판단 요건으로 (a) OUV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의 포함 여부, (b) 유산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을 온전히 대표할 수 있는 규모 여부, (c) 개발 및/또는 방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유무를 제시한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para. 88).
- 3) 등재기준 (ii)는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조정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para. 77). 등재기준 (iii)은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될 것”을 요구한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para. 77). 등재기준 (iv)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잘 보여주는 건축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일 것”을 요구한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para. 77). 등재기준 (v)는 “하나 또는 여러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인간 정주지, 토지이용, 해양이용의 탁월한 사례이거나,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을 요구한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para. 77).

참고문헌

- 김숙진, 2017,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본 지역공동체의 실제: 7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1), 49-69.
- 김종옥, 2021, “세계유산 문화경관 등재의 현실과 과제: 일본 종교유산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연구, 7(2), 27-44.
- 조아라·김숙진, 2016, “세계유산 보존관리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 화성과 남한산성의 비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149-167.
- 조유진·김숙진, 2016, “고도보존육성법과 세계유산협약의 접점에서 찾은 역사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참여방법: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3), 27-43.
- 한지은, 2020, “중국 황토고원의 동굴집 야오둥(窯洞)을 둘러싼 재현의 정치,” 한국지리학회지, 9(3), 457-473.
- Acabado, S., Albano, A., and Martin, M., 2025, Conservation for whom? Archaeology, heritage policy, and livelihoods in the Ifugao Rice Terraces, *Land*, 14(8), 1721.
- Agnoletti, M., 2014, Rural landscape, nature conservation and culture: Some notes on research trends and management approaches from a (southern) European perspective,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26, 66-73.
- Aktürk, G. and Dastgerdi, A.S., 2021, Cultural landscapes under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A systematic study of barriers to resilience, *Sustainability*, 13(17), 9974.
- Antrop, M., 2005, Why landscapes of the past are important for the future,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70 (1-2), 21-34.
- Borromeo, T.H., Altoveros, N.C., Dayo, M.H.F., and Aguilar, C.H.M., 2017, Assessing Resiliencies, Biodiversity of Global Significance and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of GIAHS-designated Ifugao Rice Terraces in Comparison to Conventional Rice Paddies: An Interim Report,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and World Agricultural Heritage Foundation.
- Cagat, K.A.D., 2018, Mixed views on the Philippines' Ifugao Rice Terraces: 'Good' versus 'beautiful' in the management of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49(1), 84-104.
- Calderon, M.M., Dizon, J.T., Sajise, A.J.U., Andrada, R.T. II, Bantayan, N.C., and Salvador, M.G., 2008,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Financing Mechanism for the Conservation of the Ifugao Rice Terraces in the Philippines, Research Report No. 2008-RR10, Economy and Environment Program for Southeast

- Asia (EEPSEA).
- Federal Republic of Germany, 2004, Nomination File 1156: Dresden Elbe Valley,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Gaillard, B., 2014, Confictive Delisting Process of a World Heritage Site in Germany: The Case of the Dresden Elbe Valle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Faculty of Mechanical, Electrical and Industrial Engineering, Brandenburg University of Technology Cottbus.
- Gomes, T.C., 2013, Novel ecosystems in the restoration of cultural landscapes of Tl'ché, West Chatham Island, British Columbia, Canada, *Ecological Processes*, 2, 15.
- Hobbs, R.J., Arico, S., Aronson, J., Baron, J.S., Bridgewater, P., Cramer, V.A., Epstein, P.R., Ewel, J.J., Klink, C.A., Lugo, A.E., Norton, D., Ojima, D., Richardson, D.M., Sanderson, E.W., Valladares, F., Vilà, M., Zamora, R., and Zobel, M., 2006, Novel ecosystems: Theoretical and management aspects of the new ecological world order, *Global Ecology and Biogeography*, 15(1), 1-7.
- Hobbs, R.J., Higgs, E., and Harris, J.A., 2009, Novel ecosystems: Implications for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Trends in Ecology & Evolution*, 24(11), 599-605.
- Hobbs, R.J., Higgs, E., Hall, C.M., Bridgewater, P., Chapin III, F.S., Ellis, E.C., Ewel, J.J., Hallett, L.M., Harris, J., Hulvey, K.B., Jackson, S.T., Kennedy, P.L., Kueffer, C., Lach, L., Lantz, T.C., Lugo, A.E., Mascaro, J., Murphy, S.D., Nelson, C.R., Perring, M.P., Richardson, D.M., Seastedt, T.R., Standish, R.J., Starzomski, B.M., Suding, K.N., Tognetti, P.M., Yakob, L., and Yung, L., 2014, Managing the whole landscape: Historical, hybrid, and novel ecosystems, *Frontiers in Ecology and the Environment*, 12(10), 557-564.
- Holling, C.S., 1996, Engineering resilience versus ecological resilience, in Schulze, P.C., ed., *Engineering Within Ecological Constraint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31-44.
- ICOMOS, 1994,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ICOMOS.
- ICOMOS, 1995,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Advisory Body Evaluation, World Heritage Centre.
- ICOMOS, 2004, Dresden Elbe Valley (Germany), No 1156: Advisory Body Evaluation, World Heritage Centre.
- Ijaradar, J., Xie, N., Wei, L., Pape, S., Körner, M., and Wang, M., 2026, How did the urban network flow adapt to the collapse of the Carola Bridge?, *arXiv*, arXiv:2603.19947.
- Khalaf, R.W., 2020a, Authenticity or continui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Scrutinizing Statement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1978-2019, *Heritage*, 3(2), 243-274.
- Khalaf, R.W., 2020b, The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Continuity and compatibility as qualifying conditions of integrity, *Heritage*, 3(2), 384-401.
- Khalaf, R.W., 2021a, World Heritage on the move: Abandoning the assessment of authenticity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Heritage*, 4(1), 371-386.
- Khalaf, R.W., 2021b, Continuity: A fundamental yet overlooked concept in World Heritage policy an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7(1), 102-116.
- Khalaf, R.W., 2024, Adopting a holistic approach to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protection under the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Mastandrea Bonaviri, G. and Sadowski, M.M., eds., *Heritage in War and Peace: Leg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for Future Protection*, Cham: Springer, 81-103.
- Landeshauptstadt Dresden, 2014, Verkehrliche Wirksamkeit Wäldschlößchenbrücke, 미출판 내부 보고서(PowerPoint 발표자료), Straßen- und Tiefbauamt.
- Li, J., Krishnamurthy, S., Pereira Roders, A., and van Wesemael, P., 2020, State-of-the-practice: Assessing community participation within Chinese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Habitat International*, 96, 102107.
- Macdonald, E. and King, E.G., 2018, Novel ecosystems: A bridging concept for the consilience of cultural landscape conservation and ecological restoratio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79, 66-75.
- Maharjan, K.L., Gonzalvo, C.M., and Baggo, J.C., 2025, Balancing tradition and innovation: The rol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griculture in the sustain-

- ability of the Ifugao Rice Terraces, *Agriculture*, 15(3), 246.
- Meijer, K., Boelee, E., Augustijn, D., and van der Molen, I., 2006, Impacts of concrete lining of irrigation canals on availability of water for domestic use in southern Sri Lanka,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83(3), 243-251.
- Morse, N.B., Pellissier, P.A., Cianciola, E.N., Brereton, R.L., Sullivan, M.M., Shonka, N.K., Wheeler, T.B., and McDowell, W.H., 2014, Novel ecosystems in the Anthropocene: A revision of the novel ecosystem concept for pragmatic applications, *Ecology and Society*, 19(2), 12.
- Murcia, C., Aronson, J., Kattan, G.H., Moreno-Mateos, D., Dixon, K., and Simberloff, D., 2014, A critique of the 'novel ecosystem' concept, *Trends in Ecology & Evolution*, 29(10), 548-553.
- Seekamp, E. and Jo, E., 2020, Resilience and transformation of heritage sites to accommodate for loss and learning in a changing climate, *Climatic Change*, 162, 41-55.
- Smith, A., McNiven, I.J., Rose, D., Brown, S., Johnston, C., and Crocker, S., 2019, Indigenous knowledge and resource management as World Heritage values: Budj Bim Cultural Landscape, Australia, *Archaeologies*, 15(2), 285-313.
- Taylor, K. and Lennon, J., 2011, Cultural landscapes: A bridge between culture and n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7(6), 537-554.
- Trelka, M., 2020, Negotiating authority: Local communities i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rchaeologies*, 16(1), 99-119.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2a, Periodic Reporting, Second Cycle - Section II: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722),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3, Periodic Reporting, Third Cycle - Section II: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722),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C.25/01,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01, Report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wenty-fifth Session (Helsinki, Finland, 11-16 December 2001), WHC-01/CONF.208/24,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06a, Decision 30 COM 7A.28: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hilippines), WHC-06/30.COM/19,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06b, Decision 30 COM 7B.77: Dresden Elbe Valley (Germany), WHC-06/30.COM/19,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07, Decision 31 COM 7A.27: Dresden Elbe Valley (Germany), WHC-07/31.COM/24,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08, Decision 32 COM 7A.26: Dresden Elbe Valley (Germany), WHC-08/32.COM/24Rev,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09, Decision 33 COM 7A.26: Dresden Elbe Valley (Germany), WHC-09/33.COM/20,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10, Decision 34 COM 7A.26: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hilippines), WHC-10/34.COM/20,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11, Decision 35 COM 7A.28: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hilippines), WHC-11/35.COM/20,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12, Decision 36 COM 7A.29: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hilippines), WHC-12/36.COM/19,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14, Decision 38 COM 7B.20: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hilippines), WHC-14/38.COM/16,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Vitousek, P.M., Mooney, H.A., Lubchenco, J., and Melillo, J.M., 1997, Human domination of Earth's ecosystems, *Science*, 277(5325), 494-499.

- Zwegers, B.C., 2018, Heritage in Transition: Global and Local Challenges i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1970-2010,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Faculty of Arts and Social Sciences, Maastricht University.
- Rehfeld, S., n.d., Dresden Elbe Valley (2026년 9월 4일 접속), <https://whc.unesco.org/en/list/1156/gallery/>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6a, State of Conservation: Dresden Elbe Valley (Germany) (2026년 9월 4일 접속), <https://whc.unesco.org/en/soc/1196>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6b, State of Conservation: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hilippines) (2026년 9월 4일 접속), <https://whc.unesco.org/en/soc/1129>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7a, State of Conservation: Dresden Elbe Valley (Germany) (2026년 9월 4일 접속), <https://whc.unesco.org/en/soc/955>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7b, State of Conservation: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hilippines) (2026년 9월 4일 접속), <https://whc.unesco.org/en/soc/953>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8a, State of Conservation: Dresden Elbe Valley (Germany) (2026년 9월 4일 접속), <https://whc.unesco.org/en/soc/794>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8b, State of Conservation: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hilippines) (2026년 9월 4일 접속), <https://whc.unesco.org/en/soc/792>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9a, State of Conservation: Dresden Elbe Valley (Germany) (2026년 9월 4일 접속), <https://whc.unesco.org/en/soc/611>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9b, State of Conservation: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hilippines) (2026년 9월 4일 접속), <https://whc.unesco.org/en/soc/609>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0, State of Conservation: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hilippines) (2026년 9월 4일 접속), <https://whc.unesco.org/en/soc/473>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1, State of Conservation: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hilippines) (2026년 9월 4일 접속), <https://whc.unesco.org/en/soc/294>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2b, State of Conservation: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hilippines) (2026년 9월 4일 접속), <https://whc.unesco.org/en/soc/149>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4, State of Conservation: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hilippines) (2026년 9월 4일 접속), <https://whc.unesco.org/en/soc/2823>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6, State of Conservation: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hilippines) (2026년 9월 4일 접속), <https://whc.unesco.org/en/soc/3420>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8, State of Conservation: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hilippines) (2026년 9월 4일 접속), <https://whc.unesco.org/en/soc/3699>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1, State of Conservation: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hilippines) (2026년 9월 4일 접속), <https://whc.unesco.org/en/soc/4090>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n.d., Dresden Elbe Valley (2026년 9월 4일 접속), <https://whc.unesco.org/en/list/1156>
- Veneno, P., n.d.,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hilippines) (2026년 9월 4일 접속), <https://whc.unesco.org/en/list/722/gallery/>
- 교신 : 김숙진,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이메일: sjkim@konkuk.ac.kr)
- Correspondence: Sook-Jin Kim, 05029,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Email: sjkim@konkuk.ac.kr)
- 투고접수일: 2026년 8월 31일
 심사완료일: 2026년 9월 21일
 게재확정일: 2026년 9월 30일